

# 韓國 休戰線에 대한 政治地理學의 研究

任 德 淳

I. 序論	IV. 休戰線의 機能
II. 休戰線의 生成過程	V. 結論
III. 休戰線의 境界類型	

## I. 序 論

### 1. 研究目的

休戰線(armistice line)에 의해서 한국의 國土가 兩分되어 온 지 18년이 지났다. 전국민의 바라는 바가 이 양단된 國토의 統一이며, 이로써 同一民族이 함께 합하여 잘 살아 보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 念願에 머물고 있을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가운데 韓國의 分斷線은 베를린 엑스클라베(exklave, exclave)와 함께, 외국의 地理學界에 “일종의 政治地理의 怪物”<sup>1)</sup>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韓國의 地理學徒는, 그 分斷理由야 여하튼 간에 이 “怪物”의인 休戰線境界를 政治地理學적으로 연구해야 할 어떤 使命을 갖고 있다고 본다. 本研究가 그 일부를 말을까 한다.

政治地理學에 있어서의 境界研究(boundary study)도 다른 系統地理學 分野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土地에서 구하고 있다. 政治的境界(political boundary)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政治體制(political system)가 지니고 있는 힘(power)의 地的 表現(areal expression)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管轄權의 힘이나 政治體制의 힘이 土地

에 投射되어, 그 결과로 인해 구체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일종의 政治地理의 現象이다.

이런 식으로 土地와 政治力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 복잡한 結合關係를 分析하고 綜合해 보는 것은 정치지리학적 境界研究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 있는 課題가 된다. 한국의 休戰線境界에 있어서도, 이 같은 결합 관계가 內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同 線을 學問的 對象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具體的 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 休戰線 境界가 어떤 過程을 거쳐서 생겼으며, <둘째> 그것의 境界類型은 어떠한가, <셋째> 本 휴전선의 境界機能과 그 효과는 여하한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오늘날 휴전선 또는 同 地帶에 관한 집중적이고도 본격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sup>2)</sup>

### 2. 研究方法

오늘날의 境界研究는 그 관심이 주로 境界 作成(boundary making), 境界 機能(boundary function), 境界 變更(boundary change), 境界 進化(boundary evolution), 境界 紛爭地帶 등 動的인 것에 기울어지고 있다<sup>3)</sup>. 이런 動向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한국 휴전선의 生成過程,

1)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Science of Geography*, 1965, Washington, D. C., P. 40.

2) 단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다.

盧啓鉉, “韓國分斷案에 관한 歷史的 考察”중 「휴전 線정과 분단」, *韓國外交史研究*(同一著者), 1968, 서울. 그리고 休戰線 이전의 38線에 관한 것으로는 洪聖恩, *秘史 北緯三八度線*, 1955, 서울. S. McCune, “The Thirty-eighth Parallel in Korea,” *World Politics*, Vol. 1, NO. 2, 1949. S. McCune, “The Thirty-eighth Parallel as a Political Boundary in Korea,” *Annals of A.A.G.* vol. 38, No.1, 1948. G. Arthur, “The Thirty-eighth Parallel,” *Foreign Affairs*, vol.29, No.3, 1951.

3) J.V. Minghi, “Boundary Studies in Political Geography,” *Annals of A.A.G.*, Vol. 53, No.3, 1963.

그의 경계 類型 및 기능 등이 고찰될 것이다. 休戰線의 생성 과정을 비롯한 諸 部面의 고찰에는 文書接近法(documentary approach)을 썼고 경계 유형 및 그 기능의 판단은 지도와 사진 판독 등으로 이루어졌다<sup>4)</sup>.

休戰協定文<sup>5)</sup>에 의하면, 休戰地帶는 그 구성상 非武裝地帶(demilitarized zone)와 漢江河口(Han River estuary)로 되어 있고, 前者인 비무장 지대의 中央線이 軍事分界線(military demarcation line)이다. 일반적으로는 이 군사분계선만을 휴전선이라고 말하나, 본 연구에서는 漢江河口도 포함한 全線을 休戰線으로 간주했다.

경계 概念 및 경계 理論에 있어서는, E. Fischer, N.J.G. Pounds, L. D. Kristof, S.B. Jones, N. J. Spykman, J.V. Minghi, J.G. Gottmann 및 H. Kelsen 등<sup>6)</sup>에 힘입었다.

## II. 休戰線의 生成過程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순서상 경계決定(delimitation)과 경계 設定(demarcation)이라는 작업이 있다. 경계 결정이란 조약이나 協定 등 政治的 次元에서 경계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경계 設定이란 앞의 政治적 결정에 의하여 次下級의 실무진이 경계선을 地圖上에 실제로 定置하는 일을 말한다.<sup>7)</sup> 이런 경로를 밟아서 하나의 경계(선)가 지도상에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는 휴전선의 경계 결정 과정이 休戰提議 초기에서부터 다루어진 것이다.

### 1. Malik의 休戰提議案 (1951. 6. 23)

1951년 3~4월간에 彼我간의 戰線은 현재의 휴전선 근처에서 거의 停滯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美國은 休戰協定下에서 共產主義의 침략을 격퇴하고, 彼我간의 敵對行爲를 금지해 보려는 軍事的 目的(통일되고 독립된 民主主義 韓國의 건설이라는 政治的 目的이 아닌,

다만 군사적 측면에서의 목적)을 설정해 놓았다. 이때가 1951년 5월 16일이다.<sup>8)</sup> 동년 6월 1일에는 UN 사무총장 Lie가 “대략 38선에 연한 停戰이, 한국에 대한 침략의 격퇴라고 하는 바, UN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sup>9)</sup>이라고 말했고, 6월 7일에는 美國 국무장관 Acheson도 이와 유사한 발표를 했다.

戰爭의 승산이 없음을 안 소련도 1951년 6월 23일, 마침내 UN 주제 소련 대사 Malik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휴전 제안을 건네왔다. 즉,

i) 38선으로서 休戰線을 삼을 것

ii) 양측의 군대는 이 휴전선으로부터 철수할 것<sup>10)</sup>

이 案은 前記 UN 사무총장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1950년 6월 25일 “以前的 狀態(status quo)”, 즉 분단 상태로 復歸하자는 내용이었다.

### 2. 開城 1次 休戰會談 (1951. 7. 10)

Malik의 이 같은 제안에 접한 UN군 사령관 Ridgway도 美國 當局의 훈령에 의해서 회담 개최를 정식으로 제의했다(1951. 6. 30). 이로써 동년 7월 10일에는 개성에서 마침내 제 1차 休戰會談이 열리게 되었다. 그 때 양측의 제안 내지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共產軍側 i) 38선을 軍事境界線으로 하고, 그 南北間 각 10 km 지역을 非武裝地帶로 삼을 것  
ii) 兩軍의 실제 前線은 38선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계측해 봐도 큰 차가 없을 것임<sup>11)</sup>

◇ UN軍側 汶山 북방의 黃海岸—중부의 金化—동해안의 高城을 연결하는 現在의 前線을 기초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것<sup>12)</sup>

공산군측 주장은 전기 Malik의 주장에 바탕을 두어 그들의 占據地域을 더 확대시키자는 의도이고, 비무장 지대의 폭도 20km로 하자는 것이었다. 한편, UN군측의 것은 당시의 전선에

4) 국가 안보상 기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서술치 않았다.

5) 國際聯合軍司令部官 一方으로 하고 朝鮮人民軍司令部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部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 軍事停戰에 관한 協定, 1條 1,5項, 2條 25項 ㄷ(ㄷ)目.

6) 각 學者의 著述이 소개된 본고의 諸註를 참조하기 바람.

7) N.J.G.Pounds, *Political Geography*, 1963, New York, p. 67.

8) H.S. Truman, *Memoirs by*, H.S. Truman Vol. II, 1956, p. 456.

9) *Ibid.*, p. 455.

10) 國防部 政訓局 戰史編纂會(이하 編纂會라 함), 韓國戰亂二年誌, 1953, p. A 10. “Statement by Jacob Malik”, The Dept. of State (ed.),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1960, pp. 125~126.

11) 編纂會, *op. cit.*, p. A 12.

12) *Ibid.*, pp. A 11~12.

기반을 돕으로써 군사적 현실(military realities)에 맞추자는 것이었다. 공산군측이 위의 주장을 섭요하게 내세웠지만 UN군측은 끝내, ① 휴전선은 군사적 현실에 근거해야 하고, ② 이러한 휴전선만이 피차간 유리한 방어 위치를 제공해주며, ③ 38선을 휴전선으로 삼으면 그것은 UN군 사령부의 韓國에서의 목적—즉 침략의 격퇴와 平和 및 안전의 회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믿어,<sup>13)</sup> 공산군측 주장에 강경하게 반대했다.

### 3. 共產軍側의 새로운 境界案(1951. 10. 26)

그간 양측의 주장과 제안 내용이 엇갈리어 會談이 거의 담보상태였는데다가, 中共軍이 開城 中立地帶를 침범함으로써 말미암아 회담은 한때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중공군측이 새로운 경계선안을 내놓았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現 前線을 기초로 하되, 약 160 km에 걸쳐서 UN군은 現 前線으로부터 최대한 24 km 후퇴할 것

ii) 이 代價로 자기측(공산측)은 甕津半島에서 철수할 것임<sup>14)</sup>

이에 대한 UN군측 주장은 아래와 같다.

i) 비무장 지대는 휴전 협정 調印 당시 적당히 조절된 前線에 기초를 둘 것

ii) 비무장 지대의 폭은 4 km로 할 것<sup>15)</sup>

이것을 보면, 공산군측이 1차 회담 때의 제안을 약간 완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도(中共의 彭德懷가 위협은 했지만) 휴전을 원하고 있는 데서 나온 하나의 方策이다. 그러나 24 km의 후퇴를 요구하고, 자기측(공산측)은 그 댓가로 응진 반도에서 철수하겠다고 한 것은 南方을 더 확보하자는 軍事地理的 심산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UN군측도 약간의 양보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비무장 지대는 휴전협정 당시 적당히 조절된 前線에 기초를 두자”는 文句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무장 지대의 폭을 공산군측이 20 km로 하자는데 대해서, UN군측은 4 km를 내세운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4 km 주장은 現幅의 始原이라고 할 수 있다.

### 4. UN軍側의 새로운 提案 (1951. 11. 17)

휴전의 성립을 위해서 양측은 상호 意見 調整을 거듭했다. 그런 가운데 다시 UN군측이 내놓은 案이 있으니 그것은 아래와 같다.

i) 휴전 협정의 조인 때까지 敵對行爲(hostility)를 계속할 것

ii) 군사 분계선은 현재의 접촉선으로 할 것

iii) 이 선의 남북 각 2 km 地點을 연결하는 선을 비무장 지대의 남북 한계선으로 삼을 것

iv) 이 선은 30일 이내에 조인되어야 할 휴전 협정에 의해서 有效토록 할 것

v)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 협정이 조인되지 않으면, 다시 그 당시의 접촉선으로써 새로운 군사 경계선을 협정할 것<sup>16)</sup>

이 UN군측 안은, 공산군측이 아래와 같은 補充案을 제시하면서 原則的인 동의를 보였기 때문에, 暫定的인 休戰線決定에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提案이 되었다.

### ◇ 共產軍側의 UN軍側案에 대한 補充案(1951. 11. 21)

i) 위 UN군측 안의 i)항을 수락함

ii) 이 i)항의 原則에 입각해서, 分科委員들은 경계선 및 남북방 限界線의 劃정을 위해 현재의 접촉선을 즉시 조사할 것

iii) 30일 이내에 휴전 협정의 合意를 보지 못하면, 이 線 및 非武裝地帶는 수정되어야 함<sup>17)</sup>

UN군측은 現 接觸線을, 공산군측은 38선을 각각 주장해오다가 공산군측이 이처럼 UN군측 안을 받아들이자, 1951년 11월 23일에는 兩軍參謀將校會議에서 地上接觸線의 劃定작업을 시작했고, 11월 26일에는 甞방 참모 장교가 지도상에 서명하여 최종 합의를 보았다. 다음날인 11월 27일에는 휴전 회담 합동 분과 위원회가 前日의 劃定線을 승인함으로써, 소위 “30일간의 暫定的인 군사 분계선<sup>18)</sup>”이 생기게 되었다. 잠정적인 분계선이나마, 그것은 本會談 개최 이래 5개월만에 생긴 難產物이었다.

그러나, 여타 안전중의 하나인 포로 교환 문제에서 양측 의견이 오랫동안 엇갈리어 위의 합

13) The Dept. of State (ed.), *op. cit.*, pp. 21, 138.

14) 編纂會, *op. cit.*, p. C 52~53, 28 次會談 커뮤니케.

15) *Ibid.*, p. A 14.

16) *Ibid.*, pp. B 77, C 58, 日誌 및 커뮤니케.

17) *Ibid.*, pp. B 89, C 59~60, 日誌 및 커뮤니케.

18) *Ibid.*, pp. C 61, B 83, 暫定的分界線原文 및 日誌 참조.

의대로 30 일 이내에 協定이 조인되지를 못했고, 사태는 惡化되어 결국 1952년 10월 8일에 UN 군측의 선언으로 회담은 다시 무기한 휴회로 들어갔다.

5. 金日成·彭德懷 공동의 會談開催要請(1953. 3. 28)

1952년마저도 지나고, 1953년 봄이 되고서부터는 한국 문제에 대한 미·소 양측의 태도가 달라졌다. 兩方의 最高 決定者(decision maker)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國內 및 國際政治상에 있어서 최고 결정자의 決心은 至大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어떤 人物이 최고 결정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결정의 投射對象이 되는 地域, 특히 政治地域의 고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소련에서는 강경한 독재자 Stalin이 1953년 3월 5일에 사망했고, 美國서는 한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Eisenhower<sup>19)</sup>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53년 1월 20일에 취임했다. 兩方 共通의 사실상의 停戰希求와 이같은 形便의 變化는 휴전 성립을 향한 급진적인 變因으로 작용했다. 즉, 1953년 3월 28일 소위 朝鮮人民軍 최고 사령관 金日成과 中共軍 최고 사령관 彭德懷는 傷痍포로의 교환에 동의하면서 휴전회담 再開를 요청해왔다.<sup>20)</sup> 미국도 바라는 터이라, 회담은 6개월만인 1953년 4월 26일에 다시 열렸다. 이 즈음 한국의 대통령은 “평화는 원하나 휴전은 원치 않는다”는 요지의 휴전 반대 성명까지도 발표했다.<sup>21)</sup>

6. 休戰協定の 調印(1953. 7. 27)

공산군측은 휴전 조인이 곧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1953년 7월 13~14일間に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다. 이는 “군사적 현실의 原則”에 착안한 최후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7월 22일에는 경계선 획정 담당 양측 참모 장교들의

장시간에 걸친 회담이 열렸다. 24일에는 한국의 李承晚 大統領의 휴전 목인 성명이 있었는데, 이 목인은 한국에서의 군사 지휘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끈질긴 무마 활동(상호 방위 조약, 경제 원조, 계속적인 한국 통일 노력의 약속 등)의 奏効 때문이었다고 본다.<sup>22)</sup> 7월 26일에는 全線이 조용해졌고, 27일 아침 10시에는 마침내 協定이 調印되었다. 그날 밤 10시부터 적대 행위가 완전 중지됨으로써, 動亂 발발 후 3년여, 회담 개최 이후 2년여만에 이 땅에 軍事分界線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境界線이 생기게 되었다(휴전선과 그 인접 지역도는 군사상 지도화하지 않음). 여기서 잠시, 당시 전쟁 수행능력에 있어서 機先을 잡고 있었던 미국이 停戰을 원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요약적으로 말하면, 당시의 미국 정치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思考가 韓半島에 연유해서 일어났다고 본다.

i) 韓半島 南部의 再確保는, <韓國—태평양—美國>이라고 하는 相對地理的 位置에서 초래되는 自國(미국)의 피해를 막는 데에는 그런대로 足하다.

ii) 현재의 前線에 의한 休戰은 1945년 8월 15일(해방 당시) 이후의 精神, 즉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두려는 의도에 합당한다(이 점은 소련측의 최소한의 希願과 일치한다).

iii) 공산주의의 침략은 自國(미국)의 개입으로 완전히 淸였다.<sup>23)</sup>

이상의 思考가 미국측의 휴전 추진 의도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Ⅲ. 休戰線의 境界類型

경계 類型에는 論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sup>24)</sup> 크게는 發生學的, 形態的, 機能的 등 세

19) M.B. Ridgway and M. Clark,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1953*, 1954, Washington, D.C., pp. 326-327.

20) 國防部 政訓部(이하 政訓部라 함), 韓國戰亂三年誌, 1954, p. C 16, 原文 참조.

21) 國際聯合 韓國統一復興委員團(UNCURK)報告書 1951~53, 立法參考資料 34號,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編), 1965, p. 281.

22) “李大統領의 韓美會談에 關한 聲明書,” 政訓部, *op. cit.*, pp. C 101~102. “Letter of President Eisenhower to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Joint Statement by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Walter S. Robertson,” The Dept. of Stat (ed.), *op. cit.*, pp. 128~131 참조.

23) H.S. Truman, *op. cit.*, p. 458, 2. General Policy (a). 任德淳, “韓國의 空間變化에 對한 政治地理學的研究” 地理學, 4號, 大韓地理學會, 1969, p. 36 참조.

24) <Pounds>는 Hartshorne에 힘입어, (1) 發生學的區分—① 先行境界 ② 從行境界, ③ 專橫的附加境界, ④ 遺跡境界, (2) 形態的區分—① 山·丘陵境界, ② 河川·湖水境界, ③ 森林·저습지境界, ④ 사막境界, (3) 機

관점에 의해서 類型化된다고 할 수 있다. 本章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휴전선을 다룰 것이다.

### 1. 專橫的 附加境界

힘의 政治(power politics)에서는 강국들이, 특히 對他國政策을 결정할 때 약소국의 悲哀를 고려하거나 객관적 사고에 입각하거나 道德的 配慮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는, 강대국 자신의 國家利益, 주관적 思考, 힘(power) 등에 의해서 어떤 원칙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실례는, 예나 지금이나 世界歷史에서 많이 보여지는 바이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자기(自國) 중심의 兩者擇一이나 選好가 문제이지, 도덕적 當爲 같은 것은 별로 문제시되질 않는다. Kristof의 말을 빌리면, 境界決定에 있어서 道德法이라는 것은 절대적 支配者는 되지 못하며 모든 智慧와 마찬가지로 단지 忠告의인 것일 뿐<sup>25)</sup>이며, 정치(특히 國際政治)에서 객관적 사고, 객관적 타당성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非政治的인 政治<sup>26)</sup>(depolitical politics)를 云謂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專橫的 附加境界(superimposed boundary)라는 것이 바로 이같은 “힘의 정치”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소산인데, 그것은 ① 分割될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민족적 特性이나 그 分布를 완전히 무시하고, ② 土著住民의 복지도 고려되지 않고, 단지 강국의 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와 같은 境界를 말한다. 이 경계는 文化景觀이 定着된 이후에 생긴다는 점에서는 從行境界(subsequent boundary)와 같으나, 종횡 경계가 다소간 자연적, 문화적 구분과 一致(conformity)하고 있는데 대해서 전횡적 부가경계는 이 “一致”가 전혀 없고, 특히 전술한 ①과 ②의 이유로 해서

종횡 경계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境界概念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경계는 과거에 植民地였던 곳에 잘 나타나는 경계이다.<sup>27)</sup>

한국 휴전선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전횡적 부가경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① 휴전선이 38선의 復舊 내지 再生이고, 38선은 전횡적 부가 경계의 대표적 실례였다는 점, ② 휴전선 경계 결정(delimitation) 과정에 나타난 한국의 무시된 지위를 고려할 때, 타력에 의한 전횡적 부가성이 발견된다는 점 등에 근거한다.

휴전선이 38선의 再生이라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몇 개의 관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즉,

- i) 소련(Malik)이 38선에 기초해서 휴전을 하자고 제의한 사실
- ii) 미국(Acheson)이 UN 사무총장(Lie)의 38線休戰案을 고려하고 나선 점
- iii) UN군 사령부의 目的이 한국의 통일 성취가 아니라, 공산 침략의 再發에 대한 최대한의 방어에 있다고 한 사실, 그리고 同目的은 兩方間의 군사력의 相對的 均衡을 休戰線上에서 회복하는 일이라고 한 점<sup>28)</sup> (이 경우도 均衡의 回復이란 分斷을 의미한다)
- iv)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첫째, 1951년 3월 이후 前線이 38선 근처에서 정체되었을 때 이에 기초해서 휴전 회담을 개최한 점, 둘째, 휴전선이 사실상 38선 근처에 存置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 휴전선은 38선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간 同一民族, 동일文化, 동일 역사적 傳承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휴전선 경계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지위가 무

能的區分~① 幾何學的의 경계, ② 民族的·經濟的의 경계, ③ 理念的의 경계, idem., *op. cit.*

<Fischer>는 (1) 國際法에 關係해서~① 國際法으로 인정된 경계, ② 몇 나라, 특히 두 隣接國家간에 認定된 경계, ③ 事實上의 경계, ④ 假作的 또는 主張경계(fictitious or claimed boundary), (2) 機能面에서~① 未設定경계, ② 未限定경계, (3) 境界設定面에서~① 自然的의 外形으로 표시되는 경계, ② 幾何學的의 경계, H.W. Weigert and others, *Principles of Political Geography*, 1957, New York.

<Valkenburg>는 (1) 自然的의 경계, (2) 民族的의 경계, (3) 非民族的의 경계, (4) 天文學的의 경계, (5) 安定 및 不安定경계, idem, *Elements of Political Geography*, 1942, New York.

<Boggs>는 (1) 自然的의, (2) 幾何學的의, (3) 人類地理學的의, (4) 複合的(complex)의 경계, idem, *International Boundaries: A Study of Boundary Functions and Problems*, 1940, New York. J.V. Minghi, *op. cit.*

25) L.D. Kristof, "The Nature of Frontiers and Boundaries," *Annals of A.A.G.*, Vol. 49, No. 3, 1959, reprinted in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W.A.D. Jackson, ed.), 1964, Englewood Cliffs, p. 139.

26) *Ibid.*

27) N.J.G. Pounds, *op. cit.*, pp.61~64, 90. H.W. Weigert, *op. cit.*, p. 94 참조.

28) "Special Report of the U.N. Command on the Armistice in Korea," "Report of the Unified Command to the U.N. Regarding Action Taken to Maintain Military Balance in Korea," The Dept. of State(ed.), *op. cit.*, pp. 141, 209 참조.

시되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것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i) 휴전선이란 “交戰當事者의 합의로써 작전 행동을 정지<sup>29)</sup>하는 것인데, 我軍側의 경우에 그 당사자는 UN軍(실체는 美軍이나 다름 없음)이어서, 한국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sup>30)</sup>

ii) 따라서 他國이 갖고 있는 意圖의 專橫으로 인해, 한국의 주체적인 意思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은 당시의 한국군측 停戰會談代表 崔德新의 아래와 같은 진술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정전 회담 한국 대표는 말이 代表이지 發言權은 거의 완전히 봉쇄당하고 있었다.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참모 회의에 들어가니, 다른 代表 冊上 위에는 두툼한 서류가 배부되어 있었으나, 나의 책상에는 종이 쪽지 하나 없었다.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sup>31)</sup>”

## 2. 混成的 境界

發生學的으로 보아 휴전선은 전형적 부가 경계였다. 形態的으로 보면 그것은 混成境界(Compound boundary)가 된다. 순수한 山境界(mountain boundary)는 아니며, 線의 대부분이 山, 河川, 谷, 平地 등을 질서 없이 횡단 통과하는 無差別 通過線이다. 따라서 휴전선의 경계 유형은 混成 境界라고 할 수 있다.

이 혼성 경계의 生成 이유는 휴전선이 당시의 전투 접촉선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江과 山은 그것 스스로가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이것들에게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概念化)함으로써 비로소 경계가 되는 것이다. 이 의도적인 意味賦與, 즉 概念化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과 타당한 검토가 前提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휴전선 경계의 경우, 며칠을 앞둔 촉박스런 攻防戰과 그에 의한 背水陣(堡壘)의 확보, 이 확보에 따른 線의 劃定이

라는 일련의 원칙과 상황에서는 境界學的으로 타당한 경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혼성 경계의 生成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한다.

## 3. 境界帶

휴전선경계는 그 南北方 각 2 km 線(南北方 限界線) 사이에 도합 4 km 폭의 地帶(zone)를 갖고 있다. 이 地帶가 바로 非武裝地帶인데, 그것은 무장 해제로서 兩 體制간의 충돌을 막으려고 만든 일종의 手段上的의 경계이다<sup>32)</sup>. 이것의 위치상으로는 中立地帶(neutral zone), 기능상으로는 緩衝地帶(buffer zone), 現象學的으로는 無人地帶(no man's land)가 된다. 그러나, 이 모두 境界形態學上 境界帶(boundary zone)에 속한다. 이 경계대가 본 고찰에서 중시되는 대상이다.

위에서 말한 이 境界帶의 生成理由나 수단이나 역할이야 여하튼 간에, 경계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時間邇及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變則的 境界帶(anomalous boundary zone)이기도 하다. 경계 發展의 歷史的의 과정을 살펴보면, 幅을 갖고 있는 이른바 帶形 경계(zone-type boundary)는 氏族 내지 部族中心의 原始 國家 시대에 성했던 경계이다.<sup>33)</sup> 國家體制가 民族中心의 近代型 國家인 民族國家(national state 또는 nation-state)로 바뀔에 따라 國家間에 統轄權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국가를 주권적 공간 단위로 보기 때문임) 이것이 나아가 線境界(linear boundary), 즉 경계선(boundary line)의 生成을 촉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帶形境界는 ① 한국政府와 北韓傀儡政權이 정치적체제(political system)상 각기 原始型 體制보다는 近代型 體制를 갖고 있고, ② 兩 體制가 혹 서로 간에 宿敵的인 별개의 民族國家여서, 흔히 異民族으로 이루어진 敵對國 사이에 설치되는 그러한 식의 완충 지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③ 그

29) 陸戰의 法規慣例에 關한 規則, 國際條約集(李漢基 外編), 1958, 서울, p. 325.

30) 註 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休戰協定條文名에도 韓國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協定調印 參席者도 Harrison 美軍中將(UN군 대표단 首席代表)과 南日 北傀軍大將(북괴 및 중공군 대표단 首席代表)이었다. 위 두 사람이 現地調印했고, Clark 大將(UN軍司令官)과 金日成(北傀軍最高司令官)은 그것을 追認했다. 休戰協定文 참조.

31) 崔德新, “停戰協定 調印 前夜—7·27을 나는 이렇게 겪었다”, 板門店, 1卷, 1號 板友會, 1969. p. 21.

32) 최근 군사 분계선 북쪽은 북괴의 重武裝地帶로 변했다고 한다. 東亞日報(지방판), 1971. 6. 15.

33) S.B. Jones, “Boundary Concepts in the Setting of Place and Time,” *Annals of A.A.G.*, Vol. 49, No.3, 1959, reprinted in *op. cit.*(W.A.D. Jackson, ed.), p. 119 참조.

경계대가 남극 대륙이나 사하라 사막 지대, 기타 여러 분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未設定境界(undemarcated boundary)나 未限定境界(undefined boundary)에 인접해서 생기는 邊境帶(border zone)도 아니며, ④ 오히려 그 경계대 내에는 현대적인 경계선(선경계=分界線)이 있어서, 形態構造상 原始的인 것과 現代的인 것이 共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시간소급적이고 변칙적인 경계이다.

#### 4. 理念的 境界

2차 대전 종말 이후, 民主·共產 兩陣營간의 理念 대립은 급격히 표면화되었다. 이같은 대립은 세계 도처에서 국제적 긴장 사건으로 具體化되었다. 최근에 와서 理念的 多極化(multipolar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1950~53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는 두 개의 이념을 중심으로 블럭(bloc)化되어 왔고, 그 블럭 내에서는 價値觀과 忠誠 메카니즘이 서로 유사한 까닭에 국경의 強度(strength)—경계가 생활에 制限을 가하거나 생활에 충돌, 혹은 마찰을 부여하는 정도—라든가, 국경의 意義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립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理念은 그 나름으로 他 理念과는 전혀 다른 排他的 價値觀과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이념간의 분리를 촉진했고, 이것이 나아가 理念的 境界<sup>34)</sup>(ideological boundary)를 발생케 했다. 政治地理學의 중요한 關心事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無形的인 이념들이 어떻게 地表化 및 地圖化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이념적 경계가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理念的 地理的 焦點이 있어야 한다. 이 焦點이 地域統合의 求心點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게 된다. 이 시간은 住民의 感情(sentiment)을 統禦할 수 있는 與論支配의 힘<sup>35)</sup> (power over opinion)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 서울과 平壤은 1945년 이래 27년간 각각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局地的 焦點이 되어 왔고, 현재는 이 두 도시를 중심점, 즉 政治·理念的 核心地(po-

litico-ideological core)로 하고 休戰線을 周邊線으로 하여 두 理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오늘날 板門店 회담 欸상 위를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 분계선은 이를 잘 실증해 주는 구체적인 실례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 휴전선을 세계적 視野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兩大 理念的 前面(front), 즉 理念的 외크메네<sup>36)</sup> (ideological oecumene)의 한계가 되고 있다.

#### 5. 等壓의 境界

이 論議는 경계를 양측간의 物理的 힘과 그 均衡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論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나, Ancel에 있어서는 <경계란 두 壓力간에 존재하는 一時的 均衡을 보여주는 政治的 等壓線>이며, Spykman에 있어서는 <當時代에 존재하는 勢力均衡의 政治地理的 表現>이고, Fischer에 있어서는 <隣接國간의 일시적이고 流轉的인 힘의 表現>이 곧 境界線이다.<sup>37)</sup>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경계는 힘의 균형 여부에 의해서 언제나라도 전진, 후퇴, 폐멸될 수 있고, 現 境界의 立地는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모든 경계를 전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는 문제점이 없지도 않겠으나 本 休戰線에는 이 等壓의 境界(isobaric boundary) 概念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쟁은 그 運動(movement)상 物理的인 힘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1951년 3월 이후의 彼我 양측의 군사력이 현 휴전선 근처에서 정체된 것은 이 힘의 均衡狀態를 의미한다. 분단선을 중심으로 해서 힘의 균형을 얻으려는 의도는 미국의 下記와 같은 기록 가운데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A concept basic to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armistice...was that the balance which existed between the military forces of the opposing sides on July 27, 1953, would not be altered..."<sup>38)</sup>

"Certain Provi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particularly subparagraph 13 (d), were designed to maintain the relative balance existing on 27 July 1953 until a political settlement

34) N.J. G. Pounds, *op. cit.*, p. 95.

35) 이 힘에 대해서는, E.H. Carr, "Forms of Power", *Foundations of National Power* (H. and M. Sprout, ed.) 1952, New York, pp. 43, 47~50 참조.

36) L.D. Kristof, *op. cit.*, pp. 142~143.

37) H.W. Weigert and Others, *op. cit.*, p. 136. S.B. Jones, *op. cit.*, p.133. J.V. Minghi, *op. cit.*, p. 413.

38) "The Korean Unification Issue, 1954~1960", The Dept. of State (ed.), *op. cit.*, p. 34.

was achieved.”<sup>39)</sup> (이상 이텔릭체는 筆者)

즉, 휴전선의 성립 및 그 維持에 있어서 礎石 구실을 한 하나의 중요 개념이 바로 “兩 軍事力의 均衡” 개념이며, 이 균형의 유지를 위해서 休戰協定文 13項 d(리)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상대적 균형의 개념이나 초기의 전체 상태나 오늘날의 對置 관계 등으로 보아, 휴전선은 양 세력간의 等壓線이라고 할 수 있다.

#### IV. 休戰線의 機能

경계의 機能에는 크게 分離 機能(seperating function)과 接觸 機能(contacting function)이 있다. 그러나 전자가 더 보편적이다.

여기서는 휴전선의 분리 기능이 가져온 效果(結果)가 고찰될 것이다. 사실상 경계 기능은 그 기능이 작용한 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結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더 잘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 1. 景觀과 境界 임프린트

휴전선이 하나의 경계로서 존재하여 그 분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효과 내지 결과는 境界景觀上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직접 효과를 景觀에 대한 경계 임프린트(imprint)라 한다. 이 임프린트 現象은 양측의 정치·사회체가 그 사이에 경계를 두고 심히 緊張關係에 있을 때, 그리고 분리의 期間이 오를수록 더욱 깊숙이 현저하게 새겨지고 말소하기 힘들 정도로 굳어진다. 실상 경계에 분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境界自體가 아니라, 그 土地를 분할하고 있는 양측의 긴장된 社會狀態이다.<sup>40)</sup> 그런데, 이 임프린트 현상이 파고들어가는 그 깊이의 정도는 위 緊張度에 비례하는 것이다. 휴전선일대에 이런 식으로 새겨진 임프린트의 內容(현상 및 경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높은 鐵柵과 여러 겹의 鐵條網<sup>41)</sup>~심한 분리 기능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임프린트된

境界景觀이다.

ii)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 標識板<sup>42)</sup>~경계 標識(boundary marker)로서, 이는 경계 지대 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경관이다.

iii) 파괴되고 방치된 기차 및 플랫폼<sup>43)</sup>~레일은 철거되고 파괴된 차량만 남아 있는데, 이는 분리 기능이 長時間 수행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또 레일이 철거되는 것은 쉽게 복구되리라는 전망도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한다.

iv) 비무장 지대의 무성한 잡초목<sup>44)</sup>~장시간에 걸친 無人地帶(no man's land)임을 말해 준다.

이 같은 경계 경관들은 임프린트의 내용이 됨과 동시에 境界認識의 指標 구실을 한다.

##### 2. 境界硬化

위 임프린트 현상에서 본 바처럼 양측간의 분리는 심한 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념의 차이로부터 초래되는 것이다. 분리 작용이 극심한 까닭에, 일반적인 경계 지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交叉境界影響(cross-boundary impact) 이나 滲透 현상<sup>45)</sup>(osmosis)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時間의 누적으로 해서, 경계가 굳어져 가는 이른바 境界硬化(boundary crystallization)현상이 촉진되어 가고 있다. 남북간의 同一民族, 同一歷史라는 점에서 이를 생각할 때, 이 현상은 심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 3. 境界摩擦

경계의 安定度(boundary stability)가 절대적인 것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休戰線의 경우는 그것이 전술한 바 양방간의 物理的인 힘의 균형인 까닭에, 경계의 安定을 바라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物理力은 성질상 進行과 衝突을 그의 대표적 屬性으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 휴전선 沿邊에서 일어나는 경계 마찰(boundary friction)은 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

39) "Report of the Unified Command to the U.N. Regarding Action Taken to Maintain Military Balance in Korea", *ibid.*, p. 207.

40) J.V. Minghi, *op. cit.*, pp. 408, 413. N.J.G. Pounds, *op. cit.*, p. 94 참조.

41) 한국일보, 1970. 1. 1. 朝鮮日報, 1969. 1. 21. 東亞日報(지방판), 1971. 3. 13. 등의 記事 및 사진

42) 前掲 板門店, pp. 90~92. 東亞日報, 1964. 12. 30. 및 同(지방판), 1971. 3. 13. 등의 사진.

43) 新東亞 70號, 1970. 6. 사진특집. 東亞日報(지방판), 1971. 1. 21의 기사.

44) 東亞日報, 1964. 12. 30 前掲 板門店, p. 89 등의 사진.

45) 鄭英昊, "非武裝地帶의 動植物生態", 大學新聞 서울대, 1968. 3. 18. 相互交婚, 交易, 勞動 交流, 生活樣式 交流 등을 말한다.



에는 정치·행정 집행의 각 部處, 國會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文化, 예술, 교육 등의 機關의 本部가 모여 있다. 이외에 外國代表部도 다수 집중되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수도 서울의 의형적 중요성의 요소들이 되고 있다. 또 한편 수도 서울은 그 무형적 중요성도 대단히 큰데, 그 까닭은 전술한 아이코노그래피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여사한 이유로 해서 국가 수도 방어의 중요성과 그 방법은 간혹 새로운 관심을 끌곤 한다. 최근 미·소간에 양국의 각 首都 주변에 배치할 요격용 미사일의 基數를 제한하자는 논의도<sup>51)</sup> 이 같은 수도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현실적인 一例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sup>52)</sup> 국방 당국은 서울~휴전선간에 5개의 방어선을 정하여 수도를 현 상태에서 보호한다는 전략을 作成해 놓았다 한다. 종전에는 서울을 포기하고, 漢江 이남으로 철수할 수도 있는 機動的 防禦戰略이었다.

이처럼 전략을 변경한 것은 휴전선 生成—위치의 상대적 변경(서울의 邊方化)—전략 변경—국민 감정의 '安定化—계속적 결속이라고 하는 서울이 갖고 있는 일련의 정치 지리적 連鎖를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 V. 結 論

이상에서 한국 휴전선의 發生, 類型, 機能을 살펴보았다. 요약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 지을 수 있다.

현 휴전선은 그 위치가 1951년 3월부터 정해진 前線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때의 정세 상태가 휴전을 추진한 초기의 外的(또는 表面的) 동기이다. 휴전선은 소련측에서는 38선에 기초해서, 미국측은 당시의 군사적 현실(현실적인 접촉선)에 기초해서 획정하자고 하는 등 그 방법론이나 휴전 추진 이유에 있어서 相違點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가 원하는 형편에서 이땅에 생

겨났다. 휴전선은 38선의 復舊였다. 이선은 최초의 휴전 회담 개최(1951. 7. 10) 이후 2년만인 1953년 7월 27일에 생겼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휴전을 성립시키는데 있어서 韓國民과 그 정부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韓美防衛條約의 체결, 경제 원조의 제공, 계속적인 統一노력 등 일련의 무마책으로 한국 정부를 說服시켰다.

휴전선의 경계 類型은 발생학적으로는 미·소가 만든 專橫의 附加境界이다. 形態적으로는 混成 경계이며, 폭 4km를 가진 境界帶이다. 기능적으로는 二大理想이 그곳에서 對峙하고 있는 理念的 경계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균형으로 생겼고, 또 현재에도 그 물리적인 힘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等壓의 경계이다.

휴전선의 경계 기능을 그 작용의 효과로써 바라보면 그 分離機能이 극한적이며, 따라서 隣接景觀에의 임프린트가 외형상 깊숙이, 현저하게 박혀 있다. 18년간 理念的 심한 대립으로 交叉境界 영향이나 삼투 현상은 전혀 없다. 境界硬化 현상이 유례 없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것이 남북간의 分離化를 외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경계 안정도는 미약하고 경계 摩擦은 늘 있을 수 있다.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국민적 信條를 키워 왔고, 따라서 두 表象體制가 자기 달리 固着되어 왔다. 이로써 하나이어야 할 국가적 아이코노그래피가 두 개로 분리·형성되어 가고 있다. 휴전선이 首都 서울의 相對地理的 位置를 심히 偏心的으로 바꾸어 놓은 까닭에, 수도의 被擊度는 큰 편이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학문적 전망은 북한 연구, 통일 연구, 시대적 요망 등에 비추어 볼 때 밝은 편이다. 그리고 관련 학문간의 제휴도 활발해질 것이다.

(釜山教育大學)

51) 東亞日報(지방판), 1971. 5. 1

52) 東亞日報 1968. 6. 17~18

# A Study of the Armistice Line in Korea

Duck Soon Im

## Summary:

The Korean geographer should study scientifically the Armistice Line in this state, regardless of the reasons for the territorial<sup>1</sup> divis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scrutinize the process of Armistice Line making
2. To judge the boundary type of the line and
3. To find out the function and effects of the line in Korea. Such documents as *the Armistice Agreement*, *Hankuk Jullan Yinyon Ji* (second year records of Korean War), *Samyon Ji* (third year records...), *The UNCURK Reports*, *The Record of Korean Unification*, *Truman's Memoir* and newspapers wer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this study.

The authorcritries to study the Armistice Line interdisplnarly between geography and political science in his approach.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s are composed of three parts.

### 1. Process of Armistice Line making

The static status of the war front in March 1951 became an early surface motivation of cease-fire line making between the UN forces and the Communist. Having different opinions of and reasons for the cease fire, they eventually determined the dividing line on July 27, 1953.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both as America and the Communists were in situations such that they had to cease fire as early as possible. The Korean government's political ideas, the people's interests, and their welfares were neglected at the conference table of the Armistice.

### 2. Boundary types of the Line

The boundary types of the line are as follows;

- a. superimposed boundary made by two leading forces
  - b. Compound boundary composed of rivers, mountains, villages and plains
  - c. Boundary zone with 4 km width
  - e. Ideological boundary created early and maintained today in terms of military equilibrium between two camps.
3. Function and Effects of the Line

The line seperates two political-social systems in Korea. The effects of this seperating function are as follows;

Boundary imprint into the landscape near the line has been deeply rooted. High iron fences, manifold wire entanglements, many boundary markers, destroyed trains, abandoned railway platforms, and wild plants growing abundantly in the DMZ are apperent expressions of boundary crystalization. This crystalization which is encouraged by a lack of cross boundary impacts and general osmosis during more than eighteen years has accelerated the disruption of the nation and history of the formerly unified Korea.

Boundary friction is always expected because of its being isobaric. Stability of the boundary, therefore, is weak.

If the present situation continues, the two national creeds and iconographies in one Korea will become serious obstacle or hindering factors for national consensus even after the achievement of territorial unification.

The line, divid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hostile systems at about 35 km north of Seoul, makes the location of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very eccentric. The vulnerability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the political core, therefore, becomes more increased.